

7월 독일지역 관광시장동향

■ [전망] 독일여행협회(DRV) 시장 전망: 독일인들의 지중해 여행 및 크루즈 선호

- 독일여행협회(DRV)는 전체 관광 시장 매출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Dr. Fried & Partner와 Travel Data + Analytics(TDA)가 공동 조사한 최신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하계 시즌 매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약 57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지정학적 상황 악화로 인해 시장 성장세는 연초 예측치(하계 시즌 및 연간 전체 3% 성장) 보다 하향 조정됨.
- 하계 휴가 물량의 상당수는 지난 연말에 이미 예약이 완료됨. 중동 위기 발발 직후 신규 예약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5월 말 이후 다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임.
- 특히 크루즈와 동서 지중해의 전통적인 해안 휴양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튀르키예, 스페인, 그리스가 가장 많이 예약된 패키지 여행 목적지로 집계됨. 반면, 중장거리 여행은 하계 및 연간 전체 기준으로 연초 기대를 밑돌며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등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 [동향] 독일 내수 관광의 강력한 호조세

- ‘Service-Reisen’의 클라우디아 파스허-크나이슬(Claudia Pascher-Kneissl) 대표는 독일 국내 여행 매출이 8% 증가했다고 언급함. 독일관광협회(DTV)의 2026년 하계 ‘휴가 계획 지수’에 따르면, 독일인의 62%가 향후 3개월 이내에 최소 한 번 이상 휴가 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함. 이중 42%는 독일 국내여행을, 40%는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해당 휴가 계획 지수는 2025년 가을에 처음 조사되었기 때문에 2026년 여름과의 직접적인 전년 비교 지표는 없음. 이에 따라

DTV 독일 내 수용 관광객 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에 대한 증감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 Travel Data + Analytics(TDA)의 가스너(Gassner) 이사는 자국 내 여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유연성’을 꼽음. 자차를 이용해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임. 이에 더해 “비용 통제 용이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여행객들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와 체계적인 공급망 형성도 수요 증가를 견인함.

■ [동향] 2026년 7월 여행업계 판매심리지수: 라스트 미닛 수요로 인한 현장 분위기 반등

- Dr. Fried & Partner가 발표한 2026년 7월 판매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온오프라인 여행사 대상 조사 결과, 현재 여행 상품 판매 상황이 ‘ 좋음 ’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2.3%(전월 10.7%)로 상승함. ‘ 보통 ’ 응답은 47.4%(전월 36.6%)로 증가한 반면, ‘ 나쁨 ’ 응답은 40.3%(전월 52.7%)로 하락함.
- 향후 6개월간 여행 상품 수요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7.5%(전월 6.1%)로 증가했으며, 수요 감소를 예상한 응답은 48.9%로 전월(58.8%) 대비 감소하여 시장 심리가 회복세를 보임.

■ [동향] 유럽여행위원회(ETC) 분기 보고서: 불확실성 속 견조한 여행 수요 유지

- 유럽여행위원회(ETC)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럽 내 국제 관광객 입국자 수는 2025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며, 숙박 일수는 4.8% 증가함.
- 여행객들은 점점 더 안전하고 가성비가 높으며 접근성이 좋은 목적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연중 분산하여 여행을 떠나는 경향이 뚜렷해짐.

- 조사 대상 목적지의 약 80%가 성장을 기록했으며, 5곳 중 1곳은 입국자 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2026년 초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국가로는 그리스(+38%), 이탈리아(+21%), 몰타(+16%) 등이 꼽히며, 이는 우수한 항공 연계성과 비성수기 분산 정책의 효과로 분석됨. 전반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나 일부 목적지는 부진을 면치 못 해 키프로스는 입국자가 17.9% 감소했고, 튀르키예도 2.1% 감소함.
- 유럽 여행객들은 접근성이 좋고 익숙하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근거리 목적지를 계속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남유럽 및 지중해 지역은 이러한 수요에 잘 부합하고 있으며, 6~11월 사이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선호도는 61%에 달함.

■ [동행] 2026년 상반기 독일-한국 항공(직항) 공급좌석 현황

- 2026년 1~6월 독일발 한국행 항공(직항) 좌석 공급은 171,675석으로 전년 동기간(189,605석) 대비 약 9.5%가 감소함.

2026	프랑크푸르트-인천		뮌헨-인천	합계
	국적기	외항사	외항사	
1월	13,990	7,911	5,860	27,761
2월	12,404	7,618	5,860	25,882
3월	13,317	9,083	6,739	29,139
4월	12,268	7,911	7,618	27,797
5월	13,297	9,083	8,790	31,170
6월	13,518	8,790	7,618	29,926
합계	78,794	50,396	42,485	171,675

2025	프랑크푸르트-인천		뮌헨-인천	합계
	국적기	외항사	외항사	
1월	15,409	4,981	7,618	28,008
2월	13,959	4,102	7,911	25,972
3월	17,541	6,739	8,497	32,777
4월	17,476	8,790	8,790	35,056
5월	15,285	9,083	9,083	33,451
6월	16,761	8,790	8,790	34,341
합계	96,431	42,485	50,689	189,605

(참고자료) : 관광 전문지 보고서 및 언론 기사, 자체조사 등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drv-marktprognose-deutsche-setzen-auf-mittelmeer-und-kreuzfahrten-262649>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statt-emirate-co-so-stark-ist-der-auftrieb-beim-deutschland-tourismus-262916>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vertriebsklima-index-juli-2026-aufbruchstimmung-am-counter-wegen-last-minute-boom-262995>

<https://www.fvw.de/touristik/destination/quartalsbericht-des-etc-stabile-reisenachfrage-trotz-wachsender-unsicherheit-262754>